



이스라엘, 가자지구 병원 폭격 이것이 진짜 테러다!

금요일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에 참가하자

이스라엘 국가가 가자 지구에 있는 알 아흘리 침례병원을 폭격해 최소 500명을 살해했다.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제2의 '나크바'(대재앙)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나크바는 1948년 시오니즘 무장 병력이 팔레스타인인 80만 명 이상을 상대로 인종 청소를 자행한 사건이다. 이번 병원 폭격 사망자 수는 나크바의 상징적 사건인 데이크 야신 학살 때보다도 많다.

팔레스타인 보건 당국은 17일 밤(현지 시각) 사망자 수를 발표했는데, 그 수치는 계속 늘 것이다. 알 아흘리 병원이 불길에 휩싸인 사진과 영상이 SNS에 공유됐다. 폭격 직후 현장에 있었던 <알 자지라> 특파원 와엘 알다도우는 이렇게 전했다. "남녀노소의 조각난 시신들이 펼쳐진 참상을 보고 있습니다. 폭격은 병원 외곽이 아니라 중심부를 타격했습니다."

이번 참사를 분명한 분수령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본성이 전 세계의 눈앞에 숨김없이 드러났다 — "테러리스트"를 겨냥하던 거짓말도 까발려졌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폭격 책임을 떠넘기려 이슬람 테러 단체가 병원



을 폭격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이스라엘이 폭격한 병원에는 아프고 죽어가는 남녀노소가 가득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식민 지배에 맞서고 이스라엘군에 수모를 안기길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레스타인인들을 집단 처벌하려는 것이다.

지배자들은 팔레스타인의 저항에 연대하는 것을 테러 지지라거나 유대인

혐오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는 참말이 아니다. 이제는 침묵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인의 저항에 연대하는 행동을 할 때다. "폭력의 악순환"을 운운할 때가 아니다.

20일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에 최대한 많이 참가하자. 지난 일요일 시위보다 참가자들이 더 늘어나도록 최대한 노력하자.

한때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고 말했

지만 아직까지는 행동과 거리를 두는 청년과 활동가들이여, 지금은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테러를 규탄하며 대학과 일터에서 사람들을 모아 거리 시위와 행동에 나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세계 각국에서 그런 노력이 한창이고 한국에서도 팔레스타인에 연대하고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일이 더 커지고, 더 많아져야 한다.

고무적이게도 지난 15일 팔레스타인 연대 행진에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참가해 모범을 보인 바 있는데, 이런 일도 확대되도록 하자.

윤석열 정부는 서방 강대국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이런 만행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최근 주한 이스라엘대사는 "이스라엘에 친구가 되어 준 대한민국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지배자들이 이스라엘의 잔혹한 식민 점령을 계속 편드는 모습은 실로 분노스럽다.

20일 금요일 시위에 최대한 많이 참가해, 전쟁 범죄자 이스라엘과 서방 후원자들 그리고 이스라엘과 서방을 지지하는 윤석열 정부에 항의하자.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행진 Palestine Solidarity Protest & march

이스라엘 지상군 가자 침공 반대!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폭격 중단하라!

팔레스타인 저항 정당하다!

No to ground invasion / Stop Israeli bombing of Gaza / Victory to the Palestinian resistance

لا للغزو البري أوقفوا القصف الإسرائيلي على غزة النصر للمقاومة الفلسطينية ضد الاحتلال الإسرائيلي

**2023년 10월 20일(금) 오후 2시
이태원역 2번 출구 앞**

2pm 20th Oct (Fri) | Near exit 2, Itaewon Station

※ 사전행진: 1시 30분 이태원 이슬람사원 앞(우사단로 10길 39) → 집회 장소
※ 집회 후 행진

※ Pre-march from Itaewon Mosque at 1:30pm to the main protest location
※ March after the main protest

문의 010-7550-2131 (eng/arb 010-2196-1917)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도 전쟁의 역풍을 두려워한다

제국주의는 살인 기계다. 그러나 제국주의에도 약점은 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수백만 명의 목숨을 위협하는 가운데, 지배계급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의 체제가 세계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번지고 있다.

세계 지배계급들의 잔혹함과 지금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하마스를 과연 뿌리 뽑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하면서 압축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바이든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물론 가능하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정부도 필요하다. 팔레스타인 국가가 들어설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바이든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미사일이나 총탄에 사지가 찢기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자고, 미국은 이스라엘에게 그런 무기를 공급한다.

그러나 바이든은 대중의 분노를 진정시키고 제국주의와 거래할 의사가 있는 아랍 세력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바이든이 우려하는 것은 유혈낭자한 가자 지구 전쟁 때문에 그런 배신 세력으로도 목적을 이루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주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이스라엘이 “국제법과 전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렇게 덧붙였다. “민간인 보호, 안전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사람들 보호, 또한 그런 이들이 식량·물·의약품·주거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준수돼야 한다.”

설리번은 팔레스타인의 안녕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자다.

설리번이 진짜로 우려하는 바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다음 논평에서 읽을 수 있다. “이스라엘 북부에서 헤즈볼라를 상대로 한 전선이 새로 형성될 우려가 있다. 헤즈볼라는 이란이 지원하는 레바논의 무장 정치 운동이다. 또한 점령 상태인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에서 폭력이 분출할 위험도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대규모 학살을 지지하지만, 제국주의에 맞서는 반란이 폭발적으로 분출하지는 않도록 주의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국제법을 준수하라는 이런 요



청은 불안정성의 충격이 이집트로 번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그간 미국은 러시아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데 주력해 왔는데, 이는 중국과의 대결이라는 핵심 관심사에 집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였다.

그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 정상화”를 압박해 왔고, 이를 통해 이란을 고립시키길 바랐다.

이 정책은 2020년 도널드 트럼프 하에서 시작됐고, 그 결과로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아브라함 협정에 서명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을 식민 지배 상태에 남겨 두는 대신 폭력과 불평등을 일부 줄인다는 모호한 약속만 있었다.

그에 이어서 바이든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려 해 왔다. 그런데 미국은 자신이 그간 공들인 외교 수완이 이제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생겼다고 우려한다.

또 다른 우려사항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경제적 혼란이 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기업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몬은 “이제껏 수십 년 동안 세계가 보지 못한 위험한 순간”이라고 표현했다.

IMF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는 “지금도 세계 경제는 최상의 상태가 아닌데 새로운 먹구름이 끼고 있다”

고 경고했다.

이런 우려들이 있다고 해서 미국이 군사적 계획을 완화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확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무장을 갖추고 있다. 지난주 미국 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중동 파견 병력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하려 항공모함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단을 동지중해로 보내고 있다. 그 전단에는 “유도 미사일 순양함 필리핀해함, 유도 미사일 구축함인 그레블리함, 메이슨함, 제3항공전대, 9개 항공기 편대” 등이 속해 있다. 미국은 지난 7일 동안에만 병력 1만 5000명을 중동에 파견했다.

그러나 미국 앞에는 또 다른 슈퍼파워가 있다.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에 이미 참가한 수백만 명과 추가로 합류할 또 다른 수백만 명이 바로 그 슈퍼파워다. 가자 지구 참사에 대한 반발감은 기아와 불평등, 비민주적 정권에 대한 분노와 결합할 수 있다. 그러면 독재자와 부자들의 머리 위에 분노의 심판을 내리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가자 지구 전쟁은 이집트에서 새로운 혁명을 촉발할 수도, 요르단 지배자들을 끌어내릴 수도, 새로운 세계경제 후퇴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미국은 자신의 경비견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벌인 짓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온라인 토론회

노동자연대 TV

이스라엘 비판이 유대인 혐오인가?

유튜브 실시간 방송

노동자연대TV 검색

10월 18일(수) 오후 8시

발제 이원웅 <노동자연대> 기자

참가신청

bit.ly/1018-ws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